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선교 활동 보고

### 세계를 무대로 뿔 준비를 하며

믿음의 삶이 달리기 경주와 같다면, 미카일라 로즈 시에라는 앞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300 미터 장애물 넘기 주 대회에서 두 번이나 1 등을 하고 배구와 농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카일라는 17 살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그녀는 6 학년 때 미국장로교 재단 학교인 메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바호 (디나이) 족인 미카일라는 메놀 학교를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앨버커키에 있는 대학 예비학교이자 기숙학교인 메놀에 대해 "메놀이 저를 키워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항공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데, 4-6 일 동안 집을 비우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일 때문에 자주 나가 계시고요."

경기장과 교실 모두에서 미카일라의 생애를 바꾼 경험은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헌금이 메놀 학교가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례 헌금은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과 소수인종 공동체 인재를 육성하는 장로교 산하 학교와 대학에 고루 분배됩니다.

경기장 밖에서, 미카일라는 뛰어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미카엘라는 마음과 몸과 정신이 강합니다. 바로 메놀 학교의 사명을 보여주는 학생이죠"라고 기관 발전 담당 이사인 멜라니 G.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미 원주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카일라는 전 세계에서 온 메놀 학교 급우들과 그들의 문화도 포용하는 데 뛰어납니다."

미카일라는 메놀 공동체가 있었기에, 자신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제 기도 생활이 많이 깊어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메놀 학교의 예배에서 저희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원주민으로서 이 땅과 영적인 유대 관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미카일라는 메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변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녀의 운동부 코치들, 선생님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그녀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밝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정말로 세계를 무대로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계의 한 쪽에서 말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준 이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 *굿명핍겜슬니낫~*

*정의와 희망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 정신, 육체, 영혼이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장을 돕는 학교들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하여 이 귀한 사명을 잘 지원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